



위기의 농어촌

활로를 찾자

<21> '여주' 재배 신안 박재도·이윤덕 부부

농약 필요없는 약용작물... 대체작목 급부상



박재도·이윤덕(신안군 지도읍 광정 2구) 부부가 지난 9월 올해 첫 재배에 성공한 여주를 수확하며 기뻐하고 있다. '식물 인슐린'으로 불리는 여주는 드링크 등 건강식품 원료뿐만 아니라 생즙, 차, 음료 등으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다.

올 봄 첫 재배...생과는 판매, 건과는 제약회사 납품 혈당강하 등 다양한 효능...日·中선 건강식품 각광

신안군 지도읍 광정2구 장동마을에 사는 박재도(46)·이윤덕 부부는 올 봄 '여주'라는 새로운 작물재배에 뛰어 들었다. 충북 음성에서 살던 마을출신 김병석(69)씨가 오랜 객지생활 끝에 지난해 말 귀향하며 '여주'에 대한 정보를 전파해 이듬해 박씨를 비롯한 마을 5 농가가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여주농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4월에 6천612㎡(2천여평) 밭에 씨를 뿌려 8월초부터 9월 중순까지 수확했다. 2m높이 U자 하우스 뼈대를 100여m 길이로 8동 만들어 여주 줄기를 올렸다. 여주가 자라며 자연스럽게 터널을 이뤄 박씨 부부는 매일매일 여주터널 속에서 바구니를 들고 수확했다.

"수확할 때 모기가 달려들기도 해 고역스럽기도 하지만 여주 꽃향기가 머리를 맑게 하고 작업의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박씨 부부가 재배한 여주 품종은 일본, 중국, 인도산을 교배한 종류이다. 아담한 크기의 토종과 달리 교배종은 80cm까지 자라기도 한다. 터널 내부를 들여다보면 두 뺨 길이 이상의 여주들이 죽죽 늘어져 있어 이색적이다. 여주는 생명력이 강해 줄기가 땅에 닿으면 새로운 뿌리가 나온다.

박씨 부부는 수확한 생과를 여주효능을 알고 찾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말린 열매 일부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모 제약회사와 계약재배해 납품했다. 올해 소비자들 기대이상으로 가을까지도 생과를 찾는 경우를 감안해 내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파종해 수확시기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식물 인슐린'으로 불리는 여주 = "여주는 열매, 뿌리, 줄기 어느 하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약용작물입니다" 박씨 부부는 여주를 재배하며 '여주 전도사'가 됐다. 여

주 생과를 갈아 요구르트와 섞어 먹기도 하고, 말린 여주를 볶아 보리차 끓이듯이 해 음료로 마신다.

여주 열매는 혈당강하와 항균작용, 뿌리·줄기는 항균, 소염진통효과, 잎·꽃은 항균, 씨앗은 강장과 해독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주의 '사포닌' 계열의 물질이 혈당강하 효과, 알카로이드 성분이 항균효과, 단백질 성분이 항암효과,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성분이 소염진통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학계의 보고이다. 일본 장수촌으로 알려진 오키와에서는 차로 즐겨먹는다고 한다.

장동마을에 여주농사를 보급한 장본인인 김병석씨는 당뇨를 앓고 있는 지인에게 여주를 고낸 것과 생즙을 권했다. 그 결과 지인에게서 '2주간 먹고나자 혈당수치가 폭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감씨는 여주 효능에 더욱 자신을 갖게 됐다. 박씨 부부 역시 요실금과 심장이 두근두근하던 증세가 없어지는 등 효과를 봤다.

박씨 부부는 올해 9만9천164㎡(3만여평)의 비닐사와 1만6천529㎡(5천여평)의 단호박, 3천306㎡(1천여평)의 보리양과 농사를 지었다. 3년전부터 단호박과 보리양과 재배에 나섰고 단호박은 무농약 인종까지 받았다. 내년에는 여주농사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박씨는 "여주는 농약을 전혀 하지 않는데다가 건강식품 등 원료로 많이 필요해 전망이 밝습니다"라고 말했다.

◇대체작목으로 농가 기대높아 = 올해 여주농사를 지으며 박씨 부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신안 지도 전체를 여름철에 여주 등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그것이다. 매년 증도와 임자도에서 개최되는 병어축제, 민어축제, 톨립축제 등 각종 행사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지만 정작 지도는 이들이 지나가는 길목



여주 건과(위)와 익은 여주

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래서 지도읍 입구에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아토피 등 다양한 체형질환이 가능하도록 꾸민다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여주는 생소해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미흡하고 기능성 건강식품도 다양하지 않지만 앞으로 학계에서 여주에 대한 천연물질 분리·분석 연구와 함께 관련 업계에서 새로운 기능성 식품 소재로 개발한다면 농가의 새로운 대체작물로도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주는 건강식품과 차, 음료로도 개발할 수 있지만 뛰어난 항균작용을 이용해 유기농 사료의 첨가제로도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박재도 씨는 "여주는 혈당강하 효과 등 효능이 뛰어나 일본·중국에서 이미 차등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새로운 지역 특산물과 약용작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문의(010-3615-7776)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잎·뿌리·줄기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열대 식물

'여주'또는 '여차'라는 식물 이름은 낯설다. 그러나 막상 실물을 대하면 오래전부터 시골에서 관상용으로 심었던 것임을 금세 알아볼 수 있다. 여주는 인도가 원산지인 아열대 박과 식물로 중국에서는 '고과'(苦瓜), 일본에서는 '고야', 영어권에서는 비터멜론(bitter melon)이라고 불린다. 줄기는 가늘고 길며 덩굴손으로 감아 올라가고, 6~8월에 노란꽃이 핀다. 8~9월에 열리는 열매는 표면에 돌기로 덮여있고 황적색으로 익으면 불규칙하게 갈라지며 빨간 육질로 싸여있는 씨앗이 드러난다. 잎, 씨앗, 열매,뿌리 등 식물전체를 약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뇨환자의 혈당강하와 고지혈증 개선효과, 항균·소염진통 작용 등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일본, 중국, 일본, 남미 등지에서 이를 이용한 신물질과 건강식품, 차, 음료 등 다양한 기능성식품 개발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식품원료로는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학술적 연구가 없고 일부 업체에서 드링크류와 기능성식품으로 가공·상품화했다.

신안, 장흥, 영광, 정읍, 제주 등 일부 지역 농업인들이 소규모로 여주를 재배해 이들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이미 중



원산지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여주 열매.

국과 대만, 일본에서 경제성이 높은 식용·약용식물로 재배되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문의 수동과 가지기 UP됩니다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상세정보와 확실한 재테크 투자

본사의 고품격수 공방수공단

100%의 고객만족을 목표로 합니다.

1. 최상의 시공을 위한 100%의 고객만족을 위한
2. 다양한 방수재질을 사용하여 수명을 연장합니다.
3. 방수재질을 사용하여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방수공사를 완료합니다.
4. 방수재질을 사용하여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방수공사를 완료합니다.

문의처: 010-5511-0444, 010-5511-0445

심야전기 보일러 은수기 마지막 설치 기회!!

한편에서는 심야전기사업은 금년말 까지 시행후 중단될 예정입니다.

심야전기 신청은 12월 30일까지 접수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재 최대 출금-전력은 22kW, 24평 거주합니다.

심야전기보일러는
전도율에 밝기때문
나래원 심수상사

광주대리점
010-3615-7776